

전남 여성 10명 중 6명 “여성 불평등”

전남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 조사 “가부장적 가족문화 개선” 29% “여성 정치인 더 많아져야” 47%

전남 여성 10명 중 6명은 현재 전남지역의 상황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10명 중 6명은 현재의 상태가 양성평등하거나 되레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전남여성가족재단은 지난 4월 전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남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진행,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과가 나왔다고 19

일 밝혔다. 전남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는 물음에는 여성 응답자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성역할 고정관념’ (29.0%)과 ‘여성의 취업기회 부족’ (19.1%)을 우선 꼽았다. 남성은 ‘양질의 보육시설 및 서비스 부족’ (23.3%)과 ‘일·생활균형이 어려운 조직 문화’ (22.1%)를 지목했다.

가사분담 형태와 관련해서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여성에게선 66.3%, 남성에게선 52.1%로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나이가 낮을수록 ‘공평한 가사 분담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역할과 관련해 ‘남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돈을 버는 것이다’는 질문에는 남녀 응답자 모두

높은 비율로 동의했다. (남성 82.7%, 여성 81.3%).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는 설문에도 남녀 응답자 모두 70% 이상 공감을 표시했다.

‘직업에는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 따로 있다’는 데 대해서도 남녀 응답자 모두 60% 이상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성역할 인식과 관련한 질문에선 성·나이별 인식 격차가 존재하며, 20대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 거부 경향이 가장 뚜렷하다고 조사기관은 부연했다.

전남지사·국회의원·기초단체장·지방의원 등 정치적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여성의 수와 관련해서도 여성 응답자 46.9%가 ‘여성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 응답자는 27.4%만 ‘여성(정

치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전남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가사와 육아 부담’ (41.0%),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 관행’ (32.9%), ‘여성의 의지와 역량 부족’ (22.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0% 미만이나,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전남 양성평등 실태조사’는 전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실시됐다. 양성평등 의식 ▲고용과 일·생활 균형 ▲사회관계 및 참여, ▲가사와 돌봄, ▲폭력과 안전 5개 영역 47문항, 137항목에 걸쳐 설문지 기반 대면조사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고흥, 우주항공중심지 육성” 김영록지사, 도민과의 대화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고흥군을 찾아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체 기지인 나로우주센터와 함께 고흥을 우주항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첨단 우주항공기술의 집약체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역사적인 발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고흥을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첨단산업 1번지로 육성하겠다”며 “드론·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아시아의 푸드밸리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고흥 거름-완도 고급 구간이 국도로 승격하고 고흥 영남-팔영 등 고흥의 SOC사업이 국·도·국지도계획에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됐다”며 “고흥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4차선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고속도로로 추진할지 도민들의 뜻을 잘 살펴 고흥의 SOC를 획기적으로 개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고흥이 남해안관광벨트의 중심축이 되도록 체류형 숙박시설 유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관광객이 최소 2박3일 전남에서 묵는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수와 진도만 거쳐 가는 것보다 고흥에도 하루를 묵을 수 있도록 관광단지가 필요하다”며 “전남도에서도 고흥군에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개관식 갖고 운영 본격화

인명구조사·응급구조사 등 배치

광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19일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북구 오지동에 들어선 체험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7860㎡ 규모로, 8개 체험구역과 23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일 체험 운영 횟수는 5회씩 예약제로 운영하며, 체험구역별 20명 이하로 진행한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별 지침에 따라 일일 체험 횟수는 3회, 체험구역별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 운영한다.

소방서 현장 대원으로 근무했던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등 전문가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23명이 체험 교관으로 활동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체험관 정상 운영되면 하루 최대 900명을 교육할 수 있으며, 연간 27만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체험관 이용은 무료다.

예약은 체험관 홈페이지(<https://gjsafe119.or.kr>)와 전화(062-606-4445-6)로 하면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의 대원칙과 함께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진,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관계자들이 침수지역에서 대피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첨단 3지구 3800여 세대 아파트 사업자 선정 논란

도시공사 “안전적 개발 위해 신용도·실적 우수 업체 선정”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 업체 선정 과정 등을 놓고 논란이다.

19일 광주 도시공사에 따르면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은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361만6000여㎡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해 8월 LH에서 참여를 포기했다. 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형태의 대형 개발을 하기로 했다.

사업자에게 일부 공동주택 용지를 선분양하고 분양 대금 3857억원을 받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토목 분야 부지 조성 공사비 500억원, 건축 분야 공

동주택 3861세대 공사비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논란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선정된 대형 개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불거졌다. 일부 업체들은 이번 공모에서 신용비율, 시공능력 등 평가 기준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모 단독 참여 시 유찰 후 재공모 하는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반박했다.

도시공사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신용도와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평가 지표를 제시했다”며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

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또 유동비율 만점 기준을 200% 반영해 특정 업체만 만점을 받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30개 업체 중 8곳이 200% 이상”이라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단독 참여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800점 이상을 얻으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모집 공고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특히 “이번 대형 개발에서는 토지 개발에 따른 분양 수입은 도시공사에서 100% 환수하고,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62개 항목 분양 원가 공개 규정이 적용돼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과 이익 발생 시 환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스타트

시의회·민단체 등 49명 구성 신양파크호텔 활용안 등 권고

광주시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정책제안 의제를 논의했다.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는 다양한 분야의 시장 혁신 의제를 협치로 풀어나가기 위해 지난 4월15일 출범했다. 행정, 시의회, 시민·직능단체, 주민자치 분야, 일반 시민 등 4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동의장인 이용섭 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회의는 시민대표인 류한호 공동의장이 진행을 맡아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 민관협치 여론수렴단 설문조사 보고, 민관협치협의회 의제 논의, 시 현안사업 논의 등을 했다.

협의회는 이날 신양파크호텔 유스호스텔 활용(청소년분과)과 전남-일신방직 부지 보존 및 활용 방안 가이드라인 마련(문화예술분과) 등 2개의 의제를 정책과제로 시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일자리 모델 등 전국적인 협치 모범 사례가 많다”며 “민관협치협의회에서 논의한 2건의 의제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 현안에 대해 정책 방향이나 소통 방식의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시장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2	2	
사 범	유아교육과	31	3	
예 능	음악학부	7	3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